

人類와 萬物은(모두) 根源이 있다.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그 生成 過程을 追求하여 그를 土台로 보
 다나은 앞날을 開拓하고자 하는것은 人類共通의 바람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記錄으로 남기게 된
 것이 나라의 歷史요 一家門의 族譜라고 하는 家史인 것이다. 때문에 國史없는 나라와 家史없는 집
 안은 있을수 없다. 國史가 있으므로 해서 先人들의 精神的인 遺産과 文化的인 所産이 保全되는 同時에
 한 民族으로서의 열이 永久不滅할것이요 家史가 있으므로 해서 祖上을 追慕하는 人倫道德과 家門의 血
 統이 子子孫孫(이) 繼承 될것이다.

그러나 時代의 變遷과 物質文明의 加速으로 因하여 民族的 歷史意識、氏族的인 血統觀念이 차츰
 稀薄해지는 것을 慨嘆하는 바이다.

先人들의 遺志를 받들어 敬祖思想을 일깨우고 孝悌之心을 培養하며 敦睦和親의 良識을 鼓吹하여
 國家社會의 美風良俗의 양양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우리 鎮宋은 祖上代代의 世居地인 忠北 鎮川에서 부터 全國에 퍼져 歷史的 社會的으로 變遷하는 時
 代的潮流에 相應해가며 綿綿히 살고있다.

우리 大同譜는 西紀一五四一年(嘉靖辛丑)判敦寧府事이신 諱(贊)祖父께서 創譜하시었으나 哀惜하게
 도 傳하여지지 못하였고 西紀一六七三年癸丑에 工曹判書를 歷任하신 諱(昌)祖父께서 發刊하신以來 己
 酉、己未、後己未、乙卯譜에 이어 第七輯을 펴게 된 것이다.

過去에는 三十年을 一期로하여 修譜하는것이 通俗的이었으나 今般譜事는 西紀一九八六年 丙寅 鎮
 宋會館創立을 記念하며 이를 契機로 全 宗親이 大同團結하여 鎮宋宗門의 發展을 爲하여 邁進코자
 함에 있는것이며 全國各地에 퍼져 살고있는 全 일가를 찾아 入譜코저 하였으나 아직 많은 일가가 入
 譜되지 못한點 哀惜하게 生覺하며 今般修譜에 物心兩面으로 勞苦를 아끼지 않으신 副會長 派宗會長
 理事 有司 여러분과 誠心껏 責任을 다하여 有終의 美를 거두게한 編輯擔當貞植族叔 校正을 擔當한
 殷植族叔과 印刷를 맡아 利害를 超越하여 盡力하여 주신 春岡文化社 勳植族叔께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西紀一九八七年(丁卯)

四月

鎮川宋氏 大宗會長

宋

炳

七

辛丑譜序

辛丑即嘉靖二十年
我中宗三十六年

譜生油然孝悌之心者著於眉山之譜也承古人皆重之意而錄及常山之姓者出於成文公之話也油然一念台獨嗇耶古人所重台獨輕耶云台於乙未年間與金兄學光寓近相從之際語及家世光云先君退閒 藥城時嘗撰外譜支派或未盡計開仍袖譜草而與牛馬走敬受而珍之將求他舊家之傳更問諸見在之派益錄其所未錄厥後遷延未就者事務病患爲之崇也歲丁辛丑病餘尺策偶揮於鷲西馳東之間始以謂遂前日未遂之志於今日者牽事周流問見之似易也偶拜桂原君得舊藏一本而宋萬頃宅又有一本叅奉宋君志修輯也宋判閣宋別提宅亦各有舊譜云而旁支後生皆未備錄也予於是鹿草以備叅互考證加書改書不一書之資云

辛丑譜序(해설)

松亭後人 宋西郊謹草叙

西郊宋判府事贊別號

本辛丑譜를 읽고 있노라 면 祖上에 對한 孝心과 宗族에 對한 友愛心이 結잡을 수 없이 솟아 오름을 느끼게 된다. 옛어른들께서 所重히 하시던 뜻을 받들어 鎭川宋氏가 常山에서 비롯된 由來를 收錄하였는데 이는 成文公께서 하신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솟아 오르는 孝悌一念을 나만이 어찌 느끼기에 忝嗇할 것이며, 옛어른들께서 所重히 여기시던 일을 내 어찌가 법게 여길 것이나 하는 精神이 本辛丑譜에서 느껴지는 바이다.

본인이 乙未年間에 金學光 仁兄과 집이 가까이 있어서 서로 相從하던 때 對話가 家族 世代에 미치게 되었다. 光의 말이 先君(돌아가신 어르신네)께서 물러나 藥城(예성)에서 閑暇로이 계시실 때 일찌기 外家の 族譜(곧, 鎭川宋氏의 族譜)를 찬찬한 일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느 支派의 派譜는 그 目錄마저 끝내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譜草를 소매에 넣고 와서 내게 주거나 拜受하여 그것을 所重히 하였다. 將次 다른 舊家에 傳하는 譜書를 求하고, 다시 그때 當時의 各派의 派譜를 더 물어서 그 收錄되지 못한 바를 더 收錄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後 遷延하여 미처 그것을 成就하지 못한 것은 밀리는 事務와 病故가 禍根이 되어서였다. 丁丑年(1517年 中宗12年)에서 辛丑年(1541年 中宗36年)에 이르는 24年 동안 病中の 몸을 이끌고 東奔西走하는 동안, 譜草를 붓가는 대로 적어 놓아서 비로소 前日에 못다한 일을 오늘에 完遂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일거리를 끌고 四方을 돌아다니며 묻기도 하고 듣고 보기도 한 것이 일을 쉽게 만드는 것같이 생각된다.

偶然히 桂原君을 뵈고 예로부터 傳해 내려오던 譜書 한 책을 얻었으며, 宋萬頃宅에서도 또한 책을 얻어가지고 叅奉 宋志君이 이를 修撰編輯해 주었다. 宋判閣宅과 宋別提宅에도 各各 오래된 譜書가 있다고 하지만 傍系나 支派의 後生들을 모두 갖추어서 收錄하지는 못하였다. 本人이 이에 欄外에 몇 字 적어 놓은 것은 이리저리 뒤섞인 것을 찾거나 考證하는 데 도움이 되려 함인데, 보래서 쓰든지 고쳐서 쓰든지 책 하나를 이를 만한 資料는 되지 못할 것이다.

判府事 松亭後人 西郊宋 贊 序

癸丑譜跋

癸丑即顯宗十四年
西紀一六七三年

我鎮川宋氏自羅麗迄 國朝冠冕綿延不絕而譜牒之藏于家者率皆草略判府事西郊公所輯錄頗似詳悉然後生之未及入錄者亦多矣 昌 嘗有意續成而不遑歲乙巳守制在完鄉遂取舊譜考證添書而窮僻之中見聞孤陋未免中輟壬子春罷官在洛始得廣覓諸姓族譜更加釐正蓋其所添錄比諸舊譜殆有倍焉業未卒而奔走於職事今秋又褫官就閒復將譜系質疑辨訛手自繕寫分作二卷雖其取捨 詳略有未稱意者而猶不至於大段差誤將欲先 謀入梓以廣其傳向來勤苦之志於是乎小副矣外派只書女婿則失於太略不為定限則涉於太煩故折衷其間限以四代姓孫則只書名字而外孫則必書姓氏以別同宗與異姓同宗繼後之人直書子某而所生親之下書以出系者歸重所後從先儒之論也生卒行蹟不得不詳吾之所自出而傍親外裔之苟有表著者則亦皆隨聞載錄不嫌其多者所以備後人之觀感也噫家之有譜猶國之有史苟無譜焉何以知其所自出而致尊祖重宗之道乎自余留心譜牒以來逢人輒問其姓貫世系如有派連於吾宋而在所當錄者則必就其行而書諸譜中雖親盡而至於塗人者亦思其初一身之義而便有惓惓之意仍或與之往來以此觀之則蘇氏孝悌之說信乎曲盡人情而收宗族厚風俗宜其不外於是也茲敢記其顛末欲與後來宗人共勗其敦睦若其耳目之所不逮記錄之所未盡則亦望有以相恕而隨得隨書益加考校終為完譜也

崇禎後癸丑孟冬 松亭九代孫 通訓大夫前行司諫院司諫 昌 謹識

曾於癸丑年間修輯是書而至於刊行則非私力所可辦者常以為恨今春昌叅守定遠季父亦宰靈山遂隨其邑力之多寡而分受劓劓之役捐俸募工累閱月而僅能完役吾叔姪平日未遂之志得遂於今日者茲豈非 國恩耶繕寫是書者定州儒生李重葉卓斗緯卓載輿也其有功於斯役不尠亦可為他日不忘之資爾

丁巳十月 日 通政大夫行定州牧使 宋 昌 識 丁巳即 肅宗三年

癸丑譜跋(해설)

우리 鎮川宋氏는 신라 고려를 거쳐 朝鮮에 이르기까지 벼슬을 끊이지 않았으며 집안에 간직한 보첩은 모두 草略한 것이었다. 判敦寧府事 西郊公 휘贊께서 輯錄한 것이 자못 자세하긴 하나 뒤에 태어난 子孫들은 거의 入錄되지 않았다. 昌이 일을 끼기 續成할 뜻은 가졌었으나 져를이 없었다. 乙巳年(顯宗六年 西紀一六六五年)에 喪을 입어 完鄉(全州)에 머무르새 舊譜를 고증 添書하였으나 시골이기 때문에 見聞이 고루하여 중단하고 말았다. 壬子年(顯宗十三年 西紀一六七二年) 봄에 官職에 서 물러나 서울에 있으면서 비로소 여러 姓氏의 族譜를 널리 참고 하여 다시 다듬고 바로잡으니 添錄한 바가 舊譜의 거의 배나 되었다. 그러나 일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職事에 분주하였다. 癸丑年(顯宗十四年 西紀一六七三年) 가을에 또 官職이 바

꺼어 한가로워 졌으므로 譜系의 의심되고 잘못된 부분을 문디 가려서 손수 베끼어 二卷으로 만들었다. 비록 取捨와 詳略이 꼭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큰 差誤에 이르지는 않았다.

장차 上梓(상재)하여 널리 전하게 되었으니 이제야 지난날 勤苦한 뜻에 조금 副應되는가 싶다. 外派를 女婿만 기록하면 너무 간략한 혐이 있고 그렇다고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너무 번거로운 것이기 때문에 절충하여 四代까지로 한정하였다. 同姓子孫은 다만 이름자만 썼으나 外孫은 반드시 姓氏를 써서 同姓과 異姓을 구별하였다. 同宗으로 養子간 사람은 아들아 무개라 直書하고 生父 밑에 出繼하였다고 썼는데 繼後를 소중히 여긴 것으로 先儒의 의논에 따른 것이다. 生卒과 行蹟을 상세히 한 것은 나의 所自出과 관계되기 때문이며 著名한 傍親과 外孫을 들은 대로 載錄하여 煩多함을 꺼리지 않은 것은 後人으로 하여금 觀感케 하려 함인 것이다.

아 짐에 族譜가 있는 것은 나라에 史記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진실로 族譜가 없다면 어떻게 그 所自出을 알 것이며 祖宗을 존중하는 道理에 이르겠는가. 내가 譜牒에 마음을 둔 이래 사람을 만나면 번번히 그 貫鄉과 世系를 물어서 만약 우리 宋氏에게 관련이 되어 마땅히 기록하여야 할 사람이면 반드시 그 항렬을 따서 譜牒에 적어 넣었다. 비록 親盡(四代祖 八寸이상)하여 남처럼 된 사람도 또한 처음에는 한 몸이었던 의리를 생각하여 문득 捲捲하는 뜻을 갖게 되고, 혹은 서로 왕래하게도 되는 것이다. 이로 본다면 蘇氏(蘇洵)의 孝悌에 관한 說은 진실로 人情에 曲盡한 것이니 宗族을 다스리고 風俗을 두터히 하는 것도 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에 감히 그 전말을 기록하여 後來의 宗人과 더불어 친목을 도맡게 하는 데 힘쓰고자 한다. 聞見이 미치지 못한 것이나 記錄이 미진한 것은 또한 서로 용서하고 얻는대로 적어서 더욱 考證, 校正하여 마침내 완벽한 族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崇禎후 癸丑(顯宗十四年 西紀一六七三年) 孟冬 松亭 九代孫 通訓大夫 前行司諫院司諫 昌은 삼가 적는다. 일찌기 癸丑年간에 이 책을 수집하였으나 刊行함에 이르러서는 개인 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므로 늘 한스럽게 여겼다. 을 봄에 昌이 외람되어 定遠牧使가 되고 季父께서 또한 靈山현감이 되셨으므로 그 고을 형세에 따라 刊行하는 일을 분담하고 祿俸을 털어 工人을 모집하여 여러달이 걸려서 겨우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우리 叔姪이 평소에 이루지 못한 뜻을 오늘에야 이루게 된 것이 어찌 나라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 책을 정서한 사람은 定州儒生 李重葉 卓斗 緯 卓載 輿이다. 이 일에 그 공이 적지 않으므로 뒷날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丁巳(肅宗三年 西紀一六七七年) 十月

世譜重刊跋(己酉譜跋)

己酉即正祖十三年 西紀一七八九年

通政大夫 行定州牧使 宋昌은 적는다

夫有族此有譜非譜無以知來處不忘本管攝人心收族厚風此正程子所謂須是明譜系者也吾宋氏肇自常山伯傳世數十綿年六百而世有聞人宗亦東方之世族也舊譜成於判敦尚書二公使吾諸派如星羅碁鋪之不可亂而有以別親疎序昭穆則收

族厚風二公有焉其功既盛矣乎但於其間不能無舛訛焉夫以盡善之武猶未盡善則攷據欠詳而致此無異也然而諸宗之以此抱恨厥有舊矣是不可以不追正前誤也且作譜既久雲仍益蕃亦可以不續舊編而有作也肆我先君子在戊辰歲纂輯新譜未及卒業而下世不佞妄不自揆竊有志於紹述而顧事力未由也歲丙午族姪景煥出宰藍田乃與之謀措置有緒而遞罷於官事又壞謬然茲事不可但已遂使家督龍煥捨家事出遊三載棲遑周旋與諸族會同洛下收聚各派系牒合力共事貨字就刊又哀采諸宗中忠賢遺狀而附焉于斯時也維必彙以忠愍後孫不撓於歧貳終始周章庸底厥績覲及相禹費精效力各勝其任俱可尚矣於是乎向之舛訛者今焉釐正而峻節高義之如西村瓢翁文章德儀之如西郊玄室孤忠純孝之如大隱价川諸公之蹟俱得闡顯而吾王考實德正學暨先考六昆季特行茂藝庶幾不湮沒於今與後矣雖於二公之功有不可僭擬若其踵二公而續舊編自謂粗遂夙志焉

歲己酉九月下澣 後孫 柱世 謹跋

己酉譜跋(해설)

대개 씨족이 있으면 족보가 있게 마련이니 족보가 아니면 유래한 곳을 알아 근본을 잊지 않고 인심을 통솔하여 종족을 결속하고 가풍(家風)을 두텁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바로 정자(程子) 정의(程頤) 중구(中丘) 송(宋)의 학자가 이른바 「모름지기 족보의 세제(世系)를 밝히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 송씨(宋氏)가 상산백(常山伯)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수십 대를 전해 오고 육백 년을 이어 오는 동안 대대로 세상에 알려진 분이 있었으니 실로 동방의 세족(世族)이다. 구보(舊譜)가 판돈공(判敦公)과 상서공(尙書公) 두 분으로 인해 이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파(派)로 하여금 별의 나열, 바둑의 포석이 흐트러질 수 없는 것처럼 친소(親疎)가 구분되고 소목(昭穆)이 정연해졌으니 곧 종족을 결속하고 가풍이 두텁게 된 것은 두 분이 제신 때문이다. 그 공이 상대하도다. 단지 그 사이에 착오가 없지 않았으나 미(美)를 다한 무왕(武王) 주(周)의 임금의 지만 오히려 선(善)에 있어서 미진한 데가 있었고 보면 고찰의 부족으로 그러한 것이니 이상히 여길 것이 없다. 그러나 여러 종씨들이 이것으로 한을 품은 지 오래 되었으니 앞서 그릇된 것을 소급해 바로잡지 않았을 수 없는 것이며, 또 족보를 편찬한 지 오래 되었고 자손이 더욱 번성해져서 역시 구보를 이어 다시 편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기에 가신 나의 아버님께서 무진년(戊辰年) 영종(英宗) 四八年 西紀에 새로 족보를 편집하시다가 끝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셨다. 변변치 못한 내가 정술하게 스스로를 헤아려 보지 않고 아버님의 못다하신 일을 이어 해 볼까 뜻을 가졌지만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하지 못했었는데 병오년(丙午年) 정조(正祖) 一〇年 西紀에 조카벨인 경환(景煥)이 남전 구수(藍田郡守)를 부임 하였으므로 함께 계획을 세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일을 또 그르쳤다. 그러나 이 일을 증단할 수 없었으므로 집안 살림을 맡고 있는 용환(龍煥)으로 하여금 가사를 그만 두게 하고 三년 동안 밖에 나가 지내면서 여기저기 주선한 끝에 여러 일가분들과 함께 서울에서 모임에 갖기 각 파보를 수집, 힘을 모아 함께 일하여 활자로 인쇄하게 되었다. 또 여러 종중(宗中)에 충현(忠賢)들의 전해 오는 행장을 모아 끝의 붙였다. 이때에 필휘(必彙)가 충민공(忠愍公)의 후손으로 분분한 의논에 동요되지 않고 끝

까지 두루 보살피 업적을 이루었고 현(鉉) 및 상우(相禹)도 정신과 힘을 쏟아 각각 그 책임을 완수 하였으니 모두가 상하다. 이제 지난날 착오된 것이 오늘날 날 바로 잡혀짐에 따라 절개가 높고 의행이 고매하신 서촌(西村)、표옹(瓢翁)같은 분과、문장(文章)과 덕의(德儀)를 가지신 서교(西郊)、현실(玄室) 같은 분과、고충(孤忠)、순효(純孝)하신 대은(大隱)、개천(介川) 같은 여러 어른들의 사적이 밝게 드러나게 되었으며 나의 할아버님의 진실한 덕행과 올바른 학문 및 아버님 유형제분들의 독특한 행실, 뛰어난 예의가 지금부터 후일까지 매물되지 않게 되었다. 비록 두분은 공에는 외람되이 전줄 수 없지 만 두분은 이 어우보를 세우는데 있어서는 스스로 조음은 옛날의 뜻을 이루었다고 본다.

기유년(己酉年)

正祖 13年
西紀 1787年

9월 하순에 후손 주세(柱世)는 삼가 뒤에 쓴다.

己未譜跋

己未即正
祖二十三年

舊譜之成至于今百有餘年矣其間代數六七子孫千百年紀此久後屬疏遠墓所及世系恐或失傳故族孫今靈巖倅文述發通各處同宗自丁未至壬子一一受單校正而世派之訛舛者考帳籍而正之職啣之疑信者聚典故而釐之費盡心力合譜淨書而以財力之未辨不能始剗厥之役世所謂名下錢則難爲收斂易致辭說故迺與巖鄉至親鳩聚若干財物屢年經營今始登梓噫我叔父叅判公曾有意而未遂者文述能繼志成事古所謂得其人待其時者非虛語也譜板藏置于完山北面場巖村中精舍此後諸宗之人各以財力來爲印出幸甚。

上之二十三年己未春瓢翁公五代孫

啓孫 跋

己未譜跋(해설)

구보가 편찬된 지 이제 백여 년이 넘었다. 그 사이에 대수는 6, 7을 거쳤으며 자손이 번성하였다. 옛수가 이렇게 오래 되고 후손이 소원(疏遠)해짐에 따라 산소나 세계(世系)를 잃어버릴까 두렵다. 이 때문에 나의 손자벨인 현재 영암 구수(靈巖郡守) 문술(文述)이 각처 일가들에게 통문(通文)을 보내 정미년(西紀一八八七年)부터 임자년(西紀一七九二年)까지 하나하나 단자를 받아들여 교정하면서 세계(世系)가 착오된 것은 호전을 고찰하여 바로잡고, 직함의 의심스러운 것은 전고(典故)를 모아 정리하였으며, 마음과 힘을 쏟아 파보를 모아 정서(淨書)해 놓았다. 그러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판본을 새기는 일은 시작하지 못하였다. 속담에 이른바 명목이 불은 돈은 거뒀들이기 어렵고 말썽일이 키기가 일쑤이기 때문에 장암리(場巖里)에서 가장 가까운 분과 함께 약간의 재물을 모아 여러 해 정영하다가 이제 비로소 판본을 새기게 되었다. 아! 나의 숙부(叔父)님 참판공(叅判公)이 마음 먹고 이루지 못한 일을 이어받아 성사시켰으니, 옛사람이 이른바 능력 있는 사람을 일어야 하며, 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게 빈말이 아니라고 하겠다. 주목의 판본은 완산군(完山郡) 북면(北面) 장암(場巖) 마을에 있는 정사(精舍)에 넣어 둔 것이니 이 다음부터 모든 종인(宗人)들은 각자의 재력으로 와서 인쇄해 갖으면 더없는 다행이겠다.

금상(今上) 正祖 23年 西紀 1799年

기미년 봄에 표응공(瓢翁公) 5대손(五代孫) 계손(啓孫)은 끝에 쓴다.

後己未譜序

己未即哲宗十一年

譜出於宗法之餘而亦足爲宗法之本尊祖重宗以敦孝悌者宗法也示之以尊祖重宗之義而使其孝悌油然而生者譜也三代之時宗法暢明固無待於譜矣至若後世則人心之渙散久矣未易猝收與其以空言諭之不若修所以示之者而使之油然而此後之君子所以盡心於譜也嗚呼其亦至意哉吾宗之譜創於嘉靖辛丑繼於崇禎後癸丑其間爲百餘年又其後百餘年而爲己未譜是三譜者遙遙相承凡例講而愈詳意義修而愈精蓋無非宗法也凡我後死者猶能與聞孝悌之說而不至渙散者豈無其以耶然族之有譜猶國之有史 史因於事 譜因於世 皆續續而不可以已者也 且舊譜三成殆屢百歲而傳乎今其緒之遠且重如此而不圖有以繼之焉則其肯曰後有人哉余爲是懼也獎率巖下諸宗發通以告各派之散處者一一收單會坐于紆山齋舍使族姪在兢主其事族孫奎鉉者鉉校正之始於戊午成於己未蓋承於上一周甲矣雖其相間年數視前爲近而古今人力量不同艱實倍之於是余年已七十餘竊自謂吾責塞矣死無憾矣雖然譜之設爲宗法耳而宗法之實孝悌是也有是譜而孝悌不興則亦安用是譜爲哉且吾宗之衰莫甚於今庶其因此有復乎小子勉之孝悌之家神必佑之嗚呼此今日區區之望也。

後己未譜序(해설)

崇禎後四周 己未 仲秋日 忠肅公 七代孫 文鐸 謹序

족보가 종법(宗法)의 여파에서 나왔으나 넉넉히 종법의 근본이 되기도 하다 조상을 존중하고 종가를 중히 하여 효제(孝悌)를 돈독하게 하는 것은 종법이고, 조상을 존중하고 종가를 중히 하여야 하는 뜻을 보여 주어 효제의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하는 것은 족보이다. 하(夏), 은(殷), 주(周) 시대는 종법이 환히 밝아 족보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나 후세에 이르러서는 인심이 별별이 흩어진 지 오래되어 갑자기 수습하기란 그리 쉽지 않게 되었다. 그러기에 말로만 깨우치느니 보여 줄 만한 것을 만들어 저절로 우러나오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었다. 이래서 후세의 군자(君子)들이 족보에 마음을 쏟게 된 것이니 오, 그 지극한 뜻이여! 우리 종족의 족보는 가정 신축년(가정(嘉禎)은 명(明)나라 세종(世宗)의 연호(宗) 36년 西紀一五四一年)에 처음으로 편찬되었고, 승정후(承正) 24년(승정(崇禎)은 명(明)나라 의종(毅宗)의 연호(顯宗) 14년 西紀一六七三年)에 이어서 편찬하니 그 사이가 백여년이었으며, 또 그 뒤 백여년이 지나 기미보(己未譜) 正祖 24년(西紀一七九九年)를 편찬하였다. 이제 차례의 족보가 아득히 서로 이어오면서 범례(凡例)를 강론할수록 더욱 자상해지고 의를 닦을수록 더욱 정미로와졌으니 아마 종법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다. 무릇 뒤에 가는 우리들이 효제에 대한 말씀들을 어 마음의 별별이 흩어지는데 이르지 않게 된 것은 어찌 그 영향이 없겠는가. 그러나 종족에게 족보가 있는 것은 국가에 역사가 있는 것과 같으니 역사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고, 족보는 세대에 기인한 것이니 이 모두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중단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누보가 세 번 편찬되는 동안 백여년을 거처서 오늘에 전해졌으니 그 서업(緒業)의 딸니

중함이 이와 같은데 체승하려고 도모하지 않으면 조상께서 나에게 후손이 있다고 하시겠는가? 내 이를 두려워하여 장암리(場巖里)에 사는 여러 종씨를 친유한 끝에 통근단을 발송해 산재해 있는 각 파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하나하나 단자를 거둬들여 우산계사(紆山齋舍)에 모여 앉아 조카별인 재응(在莛)은 그 일을 주관하게 하고 손자별인 규현(奎鉉)과 기현(耆鉉)은 교정을 보게 하였는데, 무오년(戊午年 西紀一八五八年)에 시작하여 기미년(己未年 西紀一八五九年)에 완성하니 전번 족보를 체승한 지 60년이 되었다. 비록 그 사이의 헛수가 옛날과 비교해 볼 때 짧은 것은 하지만 고인과 음인의 역량이 같지 않으므로 어렵음은 실로 배나 되었다. 이제 내 나 이 일흔이 넘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의 책임은 그렇게 면했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 여겨진다. 그러나 족보를 만들게 된 것은 종법을 위해서이고 종법의 내실은 효제이다. 족보가 있으나 효제가 흥기하지 않으면 족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종족의 쇠약함이 오늘날보다 심한 적은 없었으니 이로 인해 회복되기를 기대해 보니 후손들이여 힘을 지어다. 효제하는 가문은 신이 반드시 돕는 것이다. 아! 이는 지금 응열한 나의 바람이다.

승정 후사주 기미년(後 四周 己未年) (정종 哲宗 10年 西紀1859年) 8월에 충숙공(忠肅公) 7대손 문탁(文鐸)은 삼가서(序)한다.

刊 行 辭 (乙卯譜)

族譜는 一家의 歷史이다. 우리 鎭川宋氏는 新羅大阿飡公(諱舜恭)을 始祖로 모시고 있으나 上古의 史蹟을 알지 못하므로 高麗平章事公(諱仁)을 後始祖로 모시게 되어 鎭川의 本貫을 가진 것이다. 平章事公의 七代孫 典書公(諱匡祐)郎將公(諱匡度)安城公(諱匡輔)松亭公(諱愚)와 九代孫 叅議公(諱命古)하야 五派로 俱分된다. 우리 族譜는 至今으로 부터 四百三十四年前(西紀一五四一年)李氏王朝 中宗三十六年에 西郊公(諱贊)께서 처음 編纂하였고 其後李氏王朝 哲宗十年(西紀一八五八年)戊午年에 大同譜를 편찬하였을 뿐 前後六回를 다 派譜만 편찬하여 遺憾이던 中西紀一九七四年甲寅四月大宗會에서 大同譜 編纂에 合意되어 이에 重責을 맡고 着手한지 二個星霜 全國宗族의 絶對的인 協助로 收單 및 單金이 期日內에 收納되고 또 整書도 各派責任下 典書公 派禹洛郎將公 派炳勳 安城公 派淳九 大植 松亭公 派春植 漢植 時益 叅議公 派貞植 諸氏의 精誠어린 勞苦로 短時日內에 끝냈으며 校正에는 安城公 派義植 氏가 專心管掌하였으며 松亭公 派漢植 氏는 譜所 提供 및 物心兩面으로 우리 宗事에 協助하였으니 두루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今般譜冊 편찬에는 苦干의 漏落된 宗族이 있으리라 思料되나 大同譜로서는 거의 遜色이 없을 것이며 오직 後孫들이 잘 알 수 있도록 編纂하지 못한 것이 지극히 遺憾된 일이라 하겠다. 今後繼續未盡한 것을 補充하여 더욱 훌륭한 族譜를 編纂할 수 있는 後孫들이 輩出될 것을 期待하는 마음懇切할 뿐이다. 今般譜事에 盡力하신 任員 및 地方有司에 이르기까지의 名單을 末尾에 記載하여 다시 甚感謝의 뜻을 表하며 編纂 및 印刷의 未備한 點에 對하여 遠近宗族 諸位의 너그러운 諒解를 빌어 마지않는 바이다.

西紀一九七五年乙卯年十一月 日

高麗平章事二十五代孫 大同譜編纂委員長 炳 鎬 謹序

鎮川宋氏族譜序 (乙卯譜)

夫氏族者一家之親也。天下者一氏族之聚也。自一人而爲一家。自一家而爲一國。自一國而推之天下。蓋可知矣。自故王人。各親其親。愛其族。而能盡其敦本追遠之道。則天下國家。亦必自此平矣。自氏族之關於世道者。豈不重且大歟。吾宋先系肇自新羅大阿飡公諱舜恭。自屢傳至高麗平章事公諱仁。始貫鎮川。自鎮川之宋。蓋由是焉。自後七傳。自至典書公諱匡祐。郎將公諱匡度。安城公諱匡輔。松亭公諱愚。叅議公諱命古。自分爲五派。自蕃衍國中。自高官碩德。自世有相承。自若西郊忠肅。忠愍。壯靖。諸公。皆位高望厚。自蔚然爲當世所推重焉。自蓋吾宋之譜。始成於西郊公。自其後續是譜者。凡六次。而高宗己未之譜。迄今迨近。爲二周甲矣。自中間人事之存沒。自不可勝數。自況挽近以來。自人心世變。自日益浪翻。自一人一家將未知其爲如何。則至於分門之親。自同祖之孫。自安望其不與途人同哉。自然則茲譜之役。自固難後乎。一日矣。自於是。自合謀諸宗。自依其各派舊本。而略加刪正。自務要精簡。自名爲鎮川宋氏大同譜。自其崇本慮遠之意。自實深且切矣。自是譜之成。自實因編纂委員長炳鎬氏總轄是役。自花樹會長漢植氏主幹其事。自費兩歲而功告訖。自豈不偉與盛哉。自後之覽是編者。自其孝悌敦睦之心。自自不禁油然而生。自且瞿然而至。自則茲役之有功於來來者。自豈其淺尠也哉。自役將迄。自諸宗人。自以序囑余。自余義不敢辭。自遂慨然書之。自하노라。

西紀一九七五年(乙卯)十一月 日

平章事公二十六代孫

再

圭(政勳)

謹書

鎮川宋氏大同譜

上系編

宋氏의 淵源

都始祖宋諱柱殷公께서는 唐中葉戶部尚書의 벼슬을 歷任하시었으나 當時中國의 情勢가 群小列國이 戰亂으로 國難을 當하게 되자 國基가 安定되어 平和를 維持하고 있는 海東聖國이라 일컫는 朝鮮國으로 歸化하시면서 이땅에 宋氏姓을 轉來하게 되었다.

始祖宋舜恭 승승공공

新羅 大阿淦

十六世間失傳

公께서는 新羅 大阿淦 벼슬을 하시면서 政治 經濟 教育 農耕 等 社會 文化發展에 貢獻하시었으나 其後(諱)仁까지 十六世間 世系를 失傳하여 其記錄을 省略함

子 仁 인

十七世

贊化懿德允理功臣 銀紫光祿大夫 三重 大匡 高麗門下平章事 鎮川伯○墓鎮川郡德山面 斗村里斗如知甲坐石 築方封有表石

子 元謙 원겸

十八世

諱元卿 三重 大匡 中書門下平章事 上柱國 太宰

子 恂 見下

子 禧 見二頁

恂 守見上 十九世

西紀一二〇四年辛丑 文科參知政事 集賢殿 大學士 監修國史 判禮部事 太子少師 歷中書侍郎 平章事 金紫 光祿大夫 典故能文 雅聞博識 雖在縣車 凡國典禮 皆就諮焉 西紀一二五九年 高麗高宗 四六年 己未 七月卒 於高麗 史有除宰臣 教書 見行狀 編

子 彥琦 언기

二十世

西紀一二〇四年 宋寧宗 嘉泰四年 高麗神宗 七年 甲子 生 西紀一二二六年 丙戌 文科 歷都兵馬 錄事 監察 御史 禮賓 少卿 門下侍郎 至判將 作監事 西紀一二三八年 戊戌 一二三九年 己亥 一二四〇年 庚子 一二四二年 壬寅 連使 蒙古 西紀一二四六年 丙午 高宗 三十四年 卒 少能文 有名 儻輩 間事 載高麗史 列傳

女 金 雄 江陵人

无男

二十一世

摠郎父判事 守精子繼 紹引進 副使 七 紹上 護軍 女權 輿少卿 金子興 雞林君 繼紹 曾孫 女南 閻宰 臣外 曾孫 女趙 浚 府院君 金子興 外孫 李 春 富侍中 春富 女李 鍾 學密 直

子 彥庠 언상 无后

字文胄 宰臣 大將軍 高麗史 林 衍史 蹟 參照

女 井 眞